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국가적 감사절

(시편 21:1 - 13)

본편에서는 전쟁터에 나간 왕이 승리한 것을 감사하는 시입니다. 기도 응답에 재미를 맛본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될 것이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기도에 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20:9)라고 기도했고 이 기도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21:1)라는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또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20:4)고 기도했고 그 기도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21:2)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20편과 21편은 서로 연결된 시입니다.

1. 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감사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병들거나 위기에 처하거나 원치 않는 일에 빠지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 속에는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그들과 다른 것은 기도의 내용에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1편은 민족적 감사의 기도입니다. 1897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년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 최고의 시인 Rudyard Kipling에게 축시를 요구 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은 시를 헌납했습니다. ‘옛날부터 알려진 우리 조상의 하나님, 멀리 퍼져있는 우리 전선의 주여, 종려나무와 소나무를 다스리시는 두려운 손 밑에 우리가 나타나이다. 만유의 주여,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가 땅신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는 여왕과 고관대작들 앞에서 이같이 여왕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Kipling은 개인과 국가가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2. 과거의 승리를 감사해야 한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5절). 시인은 과거에 주께서 구원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라고 하는 3인칭은 왕 자신 일 수도 있고 왕을 위해 감사하는 제사장일 수도 있으며 혹은 백성들일 수도 있습니다.

① 그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1절). 그들은 승리를 구하되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으로 승리하기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의 복을 주셨습니다.

② 그들은 응답된 기도로 인해 감사했습니다(2절). 왕과 백성은 승리를 위해 기도했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심”(2절)을 감사했습니다.

③ 그들은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순금관으로 머리에 씌우심을 감사했습니다(3절).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심’은 공로 없는 자에게 베푸신 축복입니다. 구하기 전에 미리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시므로 왕으로 하여금 왕관을 쓰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④ 그들은 구한 것 보다 더 많이 주심을 감사했습니다(4절). 왕은 생명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왕에게 영원한 장수까지 주셨습니다. 70세까지 산 다윗에게 영원한 장수의 복을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우리는 종종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를 위한 기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그를 존중하여 기고 그의 계획대로 일이 성취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터이니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셨다는 것은 과장법 같으나 이것은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⑤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감사해야 합니다(5절). 다윗은 승리의 결과로 얻은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감사했습니다.

⑥ 하나님 임재의 기쁨을 감사해야 합니다(6절). 하나님 임재의 기쁨이란 미래에 임할 복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이것을 감사했습니다.

3. 현재적 감사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7절).

여기서 ‘의지’는 히브리어로 보타(botah). ‘인자’는 케세드라고 읽습니다. 인자하심은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편에서의 역할이며 영원하고 불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4. 미래 승리를 위한 감사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냄이여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도다”(8절).

시인은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을 과거에서처럼 미래에도 보호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의 승리는 미래 승리의 보증입니다. 성도가 완전히 승리하려면 원수를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과 원수 된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 사탄 아벨의 원수는 가인이었고 바울의 원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민족의 원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에는 후전이 없습니다. 반승은 완승의 적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승리를 기약하며 확신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야 합니다. 신령한 싸움에서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12절). 사탄의 죄는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타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13절).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서 큰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나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를 위한 기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그를 존중하여 기고 그의 계획대로 일이 성취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터이니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간섭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백성이 깨어있는 한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을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농어촌 활성화 100교회운동 확정

금년에도 62개 교회 지원키로

급격한 도시화로 피해해진 농어촌의 교회를 활성화하여 민족복음화의 모판이 되도록 돕는 농어촌 활성화 100교회운동이 확정되었다.

금년에도 우리교회는 대구남교회 소속 25개 교회, 경안교회 소속 20개 교회, 기관 6곳, 군인교회 6교회, 타교단 지정교회 5교회 등 총 62개 교회를 지원하게 된다.

우리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농어촌교회가 활성화되고 지역이 복음화되어 민족복음화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한다. 2005년도 총회보고에 의하면 우리교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에 우리가 돕게 될 교회명과 결연된 후원자들의 명단은 4면을 참조하면 된다.

KCC 서울 통곡기도대회 자원봉사 신청접수

하나님이 부여해주신 인간의 생명을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과 탈북난민들의 신앙과 인권회복을 위한 KCC(북한 자유를 위한 한국교회 연합) 서울통곡기도대회가 2월 28일과 3월 1일 영락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기도대회는 북한주민과 탈북자들의 비참하고 절박한 인권상황을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한국민족과 한국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이 침묵하

고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는 대각성운동이다. 이 대회를 위해 교회는 300명의 전화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전화자원봉사자는 전화를 통해 뜻을 함께 하는 우리의 이웃과 그리스도인들을 이번 통곡기도대회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일을 하게 된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실 분은 서울교회 사무국에 신청해주시면 된다.

권사 수련회 열려

2월9일(목) 오전 10시30분 101호에서

권사회(회장 이영희 권사) 수련회가 열린다. 2월9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권사 수련회는 1부 순서- 살림권사회와 연합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선교여성(이사야 43:4-17)'이라는 제목으로 이연옥 권

사전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의 특강을 갖은 후 2부 순서로 권사 기도회 및 월례회를 갖는다. 모든 권사는 필히 참석토록 한다.

2006년 전반기 열린프로그램 준비 시작 : 3월6일(월)부터 각 과정별로 일제히 개강

2006년도 전반기 열린프로그램 각 과정별 커리큘럼이 확정되어 오는 3월6일(월)부터 일제히 개강한다.

이번에 개강하는 열린프로그램은 제19학기 서울성경대학, 제12학기 살림경로대학, 제11학기 서울주

부대학, 제6기 결혼예비학교, 제3기 세계선교대학, 그리고 찬양대 양성반과 올해 처음 개강되는 제1기 새세대 부모학교 등이다.

우리교회 열린프로그램은 주민과 성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신앙과 삶에 도움이 되는

2006년 1학기 장학생 선발

2월12일(주) 찬양예배시간에 수여

장학회(회장: 정병무 장로)는 2006년 1학기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 2월12일(주) 찬양예배시간에 장학금(증서)을 수여한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들은 반드시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참석하여 장학금(증서)을 받도록 한다.

<장학생 명단>

고등부: 김남중(영동고3) 성기방(주몽1) 최선애(청담고3) 임지선(수도전1) 한민아(가락고3)
 대학생: 박수진(이대3) 이한나(전주교대1) 이인영(숙대2) 김미래(이대3) 이병우(한양대4) 엄지원(한서4) 김지현(국민4) 이승준(고려4) 안영수(연세3) 정다은(예솔중1) 김지현(예솔중1) 조현정(국민원) 구슬희(예솔중1) 오태봉(연세3) 김영복(외대1) 최명진(한양1) 김분이(연세1) 채정석(서울1)
 브리스길라 장학생 : 서홍위(아세아신대원2)

승용차 요일제 참여협조

서울시는 현재 실시 중인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기존의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남산1.3호 터널 교통혼잡료 할인, 거주주차신청시 우선주차권부여 등 혜택 외에 자동차세 감면(서울시등로 6인승이하 비영업승용차: 연5%), 자동차 보험료 할인(서울시등로 10인승이하 비사업승용차: 연2.7%, 자차, 자손) 등이다. 성도들의 많은 협조 바란다.

제19학기 서울성경대학

제6기 결혼예비학교

제3기 세계선교대학

과목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사도행전	월 오전 10:00-11:00	서명철 목사	602호
사무엘상하	화 오후 7:30-8:30	윤영국 목사	602호
로마서	목 오전 6:00-7:00	이태훈 목사	602호
레위기	금 오전 6:00-7:00	이규정 목사	602호
교사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이태훈 목사	609호
교구일꾼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지혜영 전도사	607호

일자	강의주제	담당
2/19	성경적 결혼관	이규정 목사
2/26	신혼의 성스러운 성	박정원 집사
3/5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위치	주원순 선생
3/12	결혼과 재정관리	김금준 집사
3/19	양기 부모님과의 관계	이현숙 집사

일자	강의주제	담당
3/6	종교 갈등과 선교	전호진 박사
3/13	세계선교의 흐름과 한국교회	이광순 교수(광신대예배선교대학원장)
3/20	한국의 선교와 개교회	손유태 목사(종국동 교회)
3/27	총회선교정책과 현황	신병현 목사(총회세계선교부총무)
4/3	선교정탐의 이론과 실제	문상철 원장(합신교수)
4/10	선교시의 생활과 사역	김동찬 선교사(인도네시아)
4/17	선교를 위한 지역교회의 역할	이동위 목사(전주안디옥교회)
4/24	누가 전문인 선교사가 되나?	김태연 박사(GPI 원장)
5/1	선교와 문화	김동화 목사(GMF 법인사역대표)
5/8	선교의 유형들	안정식 교수(합신대, GMTIC)

제12학기 살림경로대학

제11학기 서울주부대학

일자	과목	강사
3/9	노인성 질환	윤문식 원장(자생병원)
3/16	행복한 노년의 삶	차중화 선생(사회복지사)
3/23	노후의 경제/세/의료 등의 이통의 유래	함기창 선생(전 한일은행 연수원장)/이흥환 선생
3/3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홍양희 선생(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회장)
4/6	경력마사지	정관경 선생
4/13	감사의 조건	채규철 교장(두밀리자연학교교장)
4/20	아름다운 정리	오재철 선생(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
4/27	노인 건강과 치매	김영주 집사(북경한의원 원장)
5/4	칭찬한 마디의 기적	최옥화 선생(칭찬프로그램 전문강사)
5/11	아외수업	

일자	과목	강사
3/7	신앙과 가정	이태훈 목사(서울교회)
3/14	올바른 자녀교육(1)	이두표 교수(승실대)
3/21	올바른 자녀교육(2)	이두표 교수(승실대)
3/28	교회와 장애인복지	이동귀 교수(경기대)
4/4	체질에 따른 건강관리	이운진 권사(약사)
4/11	예술 이해하기	이명아 집사(서울산업대학교수)
4/18	아외수련회(국립박물관)	
4/25	교회음악과 찬송법	고성진 교수(김자경오페라단장)
5/2	신앙인중	임범창 집사(서울교회)
5/9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이희범 원장(지구촌가정훈련원)

KCC 통곡기도대회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북한 주민과 탈북자를 위한 서울 통곡기도대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절대적 빈곤과 기아, 그리고 정치적 탄압 아래 있는 북한 주민과 탈북자의 현실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들을 도울 책임이 있다.

그동안 기독교 NGO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던 북한인권 문제가 이전 UN에서까지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핫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17일(현지시각)엔 UN총회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됐다. 유럽연합(EU)이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UN은 북한이 고문과 공개처형, 여성의 인신매매와 영아살해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행해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3년 전인 지난 2003년 제 59차 UN인권위원회가 대북인권개선 결의안을 채택하면서부터다. 이후로 UN인권위는 해마다 강도를 높여 북한 인권의 열악함을 지적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왔다.

2004년엔 미국의 의회도 "북한인권 법안"을 통과



▶중국공안원에 의해 끌려나오는 탈북자 가족

시켰다. 법안은 1.북한주민 인권보호 2.북한주민 지원 3. 북한난민 망명허용 등 3가지가 주요 골자다.

국내 일각에서는 "북한인권법안"이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에 투표를 기권하면서 "북한 인권에 우려를 갖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문제와의 조화 속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문제는 남북관계 손상에 대한 우려를 따지기 이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 되어 버렸다.

북한의 실상이 너무 처참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들이 다름 아닌 "강도 만난 자"인 것이다. 우리가 형제된 이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어느 민족이 할 것인가?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앙인이 명심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김정일 정권 붕괴와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 부여 등과 같이 현실 정치의 지형에서 보면 사실상 북한 정권을 고립, 붕괴시키기 위한 것들이다. 적그리스도인 북한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물론 당연한 바램이다. 우리 신앙인들은 통일조국의 앞날을 놓고도 지금부터 기도해야 한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KCC 통곡기도대회가 그래서 중요하다.

김민철(편집부)

한국시민연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영숙 권사(사랑부 부장)



금년도 사랑부 겨울성경학교는 둘째 주일(2월 12일), 하루 동안 열리며 주제는 "나도 기도 할래요"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여름/겨울성경학교는 늘 사랑부실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교사들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금년 겨울성경학교의 프로그램에는 "나도 기도 할래요"란 주제 아래 교사와 학생의 분반공부가 있고 또 주기도문 퍼즐 맞추기와 아멘 관현악단의 연주, 그리고 전국성경연구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사랑부 교사의 재미있는 성경이야기 등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번 겨울성경학교 때에는 일반 고등부로 올라간 사랑부 학생들 중 고등부를 졸업한 학생들이 사랑부 보조교사로 봉사하게 되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부 교사는 일반 교회학교의 교사와 다를 바가 없지만 아이들의 장애의 특성과 성향도 드러난 외모로 인해 자칫 간과하기 쉬운 감추어진 재능을 찾아내고 개발하는데 남다른 열정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각기 다른 장애의 특성과 인지능력을 가진 아이들에게 그들에 맞는 맞춤형 신앙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겨울성경학교가 시작되기 전날 2월 11일(토)에 처음으로 사랑부 교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 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하나님께서는 서울교회에서도 믿음과 재능이 뛰어난 청년들을 사랑부교사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보석처럼 빛나는 젊은이들입니다.

좋은 교사로서의 소양 및 전문교육이 사랑부교육의 선결과제라고 생각하여 사랑부에서는 처음으로 신입교사 오리엔테이션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주기적으로 장애인 분야의 교사교육을 위한 세미나와 연수를 실시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나가려고 합니다.

사랑부 겨울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사들에게는 많은 생각이 오겠습니다. 사랑부 교사가 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어려운 중책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 이것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장애우들을 통해 그분의 뜻과 계획을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서울교회 호산나 복지 재단의 원년이 되는 2006년, 사랑부 겨울 성경학교가 은혜롭게 마치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진경(대학부외장)



2006대학부 겨울수련회 주제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수련회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바르게 알려드립니다.

올바르게 기도함으로 그리고 주님께 찬양함으로 주님과 호흡하고 대화하려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그리고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보려합니다!

새는 하늘에 살 때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속에 살 때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릴 때 행복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행복함을 찾는 대학부 겨울수련회가 오는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 가평 승동기도원에서 있습니다.

대학부에 속한 모든 지체는 수련회에 함께 하길 원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쉬어서는 안됩니다. 육신적으로도 호흡이 끊기면 죽을 수 밖에 없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주시는 이 때에 모두 함께 주님께 나아갑시다!

100교회 후원 결연 현황

만민에게 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강아람 선교사(아시아)

지난해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 때 파송을 받고 동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강아람 선교사가족이 한국에 잠시 돌아와 총회 선교부에서 실시하는 선교사업 교육을 받고 있다.

강 선교사는 현재 선교 지역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를 돌아다니며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강 선교사가 맡은 가정교회는 크게 7개 지역으로 이 곳에 모이는 가정교회 지도자만 약 6백명에 이른다. 이들은 각자 신앙관도 다르고 정규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지만 말씀 공부를 하며 체계적인 신학공부를 받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들은 일주일씩 말씀을 배우고 양육을 받은 뒤 다시 자기 마을로 돌아가 지역과 가정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각 지역 가정교회마다 수십명에서 수백명씩 교인이 있음을 감안할 때, 약 20-30만 명의 현지인이 직간접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들 가정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20여 명은 올해 안으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고, 또 상당수는 우리교회 김치세미나에서 훈련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강선교사가 순회하고 있는 이 같은 가정교회는 대부분 서로 수백 킬로미터씩 떨어져 있는데 강 선교사는 이 지역들을 주로 기차로 며칠씩 걸려 이동한다.

그러다보니 집에 돌아오는 날은 한 달에 겨우 하루

이틀에 불과하다. 그래도 곳곳에서 말씀을 들으려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뜨거운 열망에 강선교사는 힘을 얻고 있다.

현지의 선교 상황은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특히 체류하는 동안 당국의 통제와 감시를 피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고 있다고 강 선교사는 말한다.

강선교사는 이번 교육을 마친 뒤 선교지로 가면 지금의 거주지에서 약 2천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다. 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가정교회를 더욱 확장시키기 위한 사역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도제목>

1. 이사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집과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2. 새로운 선교지로 이동해서도 동역자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3. 비자 연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인도로 순적하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4. 자녀(큰아들 5학년, 막내딸 2학년)들이 새로운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편집부)

제1기 새세대 부모학교

일자	과목	과목
3/7	성경적 자녀양육	서명철 목사
3/14	아빠의 비법	이규정 목사
3/21	다시 도전하는 사회생활	박금실 전도사
3/28	가정경제	김금준 집사(국민은행 내방역지점)
4/4	단계별 놀이치료	최규만 (정신여대)
4/11	가베 이용법	이영옥 (장신대기독교교육연구원)
4/18	비즈공예	박윤주 (한국공업협회)
4/29	아외소풍	서울대공원
5/2	올바른 식습관 길들이기	나미용 집사(삼양병원 영양관리실)
5/9	유아 응급처치	오영숙 (서울시립병원)

제12기 찬양대 양성반

일자	과목	과목
제1주	찬양과 예배/경건의 찬양	윤영국 목사/박성혁 선생
제2주	호흡과 발성법/음표와 음표	박성혁 선생
제3주	호흡과 발성법/리듬과 박자	박성혁 선생
제4주	호흡과 발성법/계명창법	박성혁 선생
제5주	호흡과 발성법/계명창법	박성혁 선생
제6주	호흡과 발성법/자비없는 열성가대역사	박성혁 선생
제7주	호흡과 발성법/찬양대 소개	박성혁 선생/각 찬양대 대장

등정

- 이종운 목사는 7일(화) 총회표준주석 편찬위원회에, 9일(목) 한국군 선교연합회 이사회에 각각 참여하고 한국교회 사학(史學)연구원에서 세미나 개최설교 한다.
- 박정선 장로는 미국 컷코스 음대 연구교수로 1년간 초빙되어 2월11일(토) 출국한다.
- 이영조 집사 쌍용양회 본사전무(생산총괄)로 영전
- 한국 바이런(주)(사장: 전기섭 장로)경실련(사) 경제정의연구소 선정 제5회 바른외국기업상 준범항목에서 1위 수상
- 주간식당 봉사: 베드로교회(2월 5일) 바울전도회(2월12일)
- 금주의 식사제공: 박창희권사 가정(자녀결혼 감사), 교회제공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다음주 계속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겨울성경학교·수련회 은혜 중 진행되도록
2. 육사 졸업생과 신입생들의 신앙증진을 위하여
3. 성경대학을 비롯한 열린프로그램 위하여
4.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 교회오시는 길

